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
River & Culture



송원영 | 김해시청 문학재과
(oosong@korea.kr)

김해 화포천 이야기

1. 화포천의 유래와 현황

1.1 화포천의 유래

화포천(花浦川)은 화포라는 지명에 의해 붙은 이름이다. 화포는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신교천가에 있는데, 옛 이름은 화성포(花城浦)이다. 『김해부읍지』에 의하면 ‘화성포는 김해도호부에서 북쪽으로 30리 낙동강 남쪽 변에 있다. 아래로 흘러 신포(薪浦)로 들어간다. 돌다리가 있다’ 고 하였다(이병태, 國譯 金海邑誌, 1984, 김해문화원).

화성의 ‘花’는 남쪽에 있는 마을 등을 뜻하는 ‘골’을, ‘城’은 등성이나 고개를 뜻하는 ‘자’를 표기하기 위한 차자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화성은 ‘골자’의 차자표기이고, ‘남쪽에 위치한 등성’을 뜻한다고 한다(만궁기, 金海의 地名, 2005, 김해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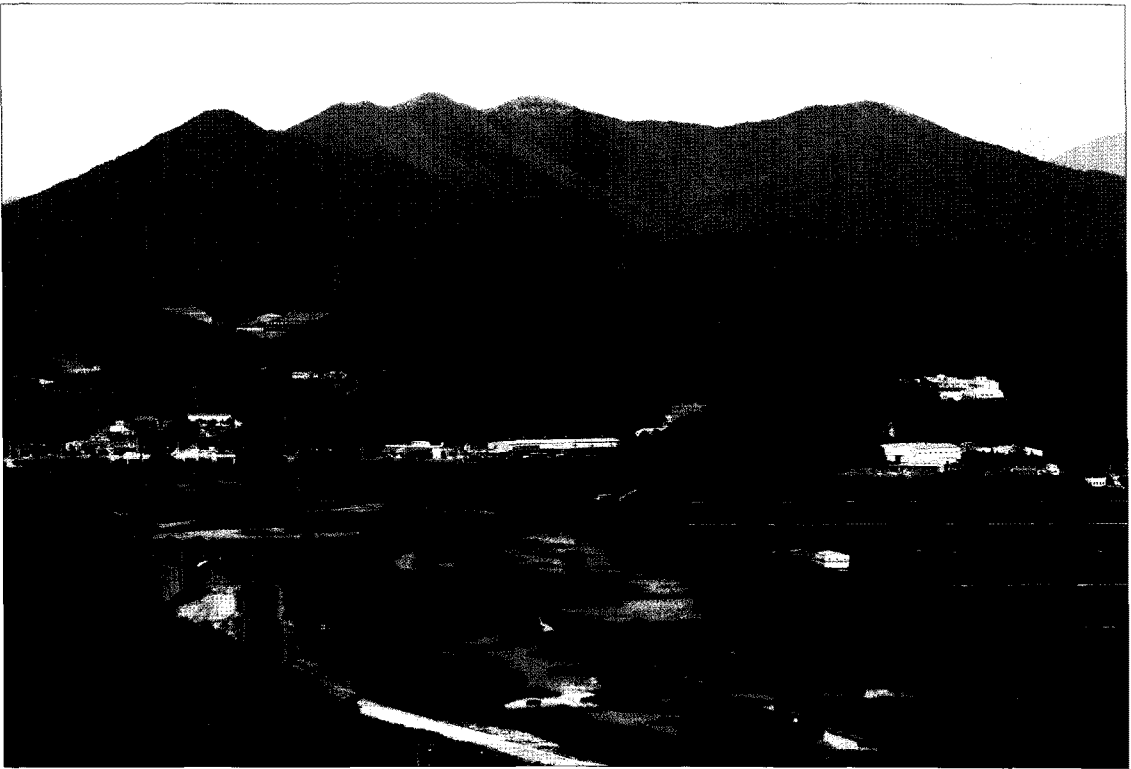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동쪽에 꽃피동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화산(花山)이다(이병태, 김해지리지, 2002, 김해문화원).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김해지리지에 보이는 화산이라는 지명이 곧 화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화성포는 화산의 기슭에 있는 포구마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화포는 화성포에서 ‘城’자가 축약되어 나타

난 이름이므로 화포천은 결국 화포마을에 있는 하천일 것이다. 즉 낙동강의 남쪽 화산 자락에 있는 포구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이어서 화포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고지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지금의 화포천으로 추정되는 하천이 진례면에서 발원하여 ‘화성포(花城浦)’라는 마을을 지나 낙동강으로 합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림 1〉 18세기 경 김해부와 낙동강, 화포천의 모습
〔金海府 “海東地圖”, 1995, 서울대학교 규장각〕



〈그림 2〉 화포천 전경

12 화포천의 현황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도 뽑힌 화포천은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해발 659m, 평지 마을 뒤편)에서 발원하여 신안저수지를 거쳐 송정리를 지나 진례 분지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흐른다. 시례리에서 흘러온 곤법천과 시례리와 청천리 경계 지점에서 합류한 화포천은 어느 듯 담안리 앞들에서 다시 송현리를 관통해 온진례천과 합류하여 고모리를 지나 진영읍 쪽으로 흘러간다. 진영읍 죽곡리와 설창리를 지난 화포천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본산리 봉하마을 앞들을 적시고 한림면 장방리와 퇴래리, 명동리, 안하리에 둘러싸여 늪지로 변한다. 다시 시산리, 금곡리를 지나 낙동강으로 합류하여 3개 읍면을 거쳐 은 약 21km 지방2급하천 생명의 길을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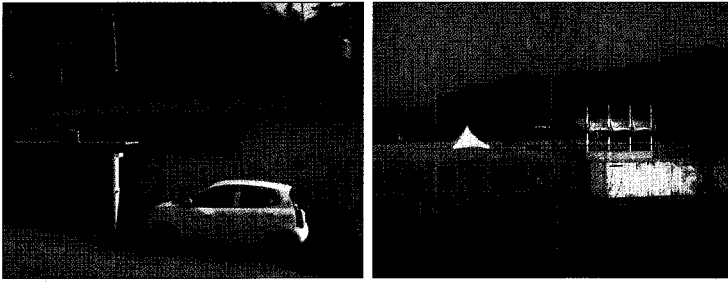
이렇게 달려온 화포천의 유역은 면적이 약 138㎢에 달하며, 유역 내에는 83개의 저수지가 있을 만큼 낙동강의 제 1지류로 손꼽히고 있다.

화포천 유역 내에 살고 있는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38,041명으로 인구 밀도는 김해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유역 내 토지이용 현황은 농경지가 약 35%, 임야가 47%, 도시 및 주거지가 약 13%, 수역이 약 5%로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기온은 13.5℃, 상대 습도는 63.2%, 평균 강수량은 1,246mm이다.

하류의 한림면 일대는 과거에는 낙동강의 범람원이었으나, 농지조성 목적으로 하구에 배수문을 설치하고 제방을 축조하여 개간한 농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포천의 홍수량을 낙동강으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장이 있었는데, 2002년 집중호우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마을주민 모두를 집단이주단지를 만들어 이주시키고 배수펌프장도 2대로 늘려 2004년 (신)한림배수장을 완공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낙동강이 이렇게 범람하게 된 것은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탓도 있겠으나, 지형적으로 자연적인 저수지 역할을 하던 늪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온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늪지의 일부를 완전히 매립하여



〈그림 3〉 화포천 인근 식당(좌)과 잔디를 식재한 운동장(우)

잔디를 식재한 운동장을 만든 것이라든가 교량이나 독길을 만든 것이라든가 하는 개발 사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높지의 많은 부분이 육지화 되었다. 이렇게 하천과 높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도 화포천 변에는 화포천에서 잡은 메기나 장어 등의 물고기를 요리하여 팔던 식당이 아직도 몇 군데 남아 있으나, 요즘에는 양식한 물고기를 사서 조리한다고 한다. 자연환경의 변화는 결국 하천에 기대어 살아온 주변 주민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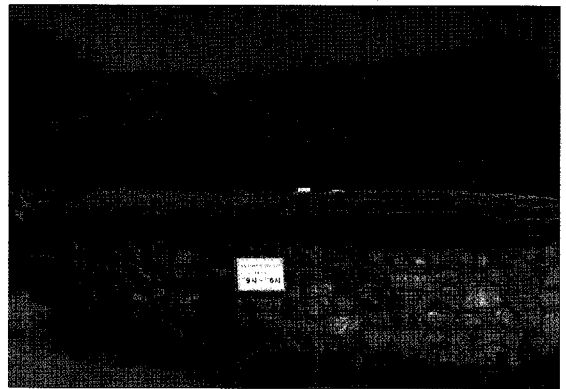
화포천은 자연습지 하천으로 68종의 조류와 16종의 다양한 식물 군락이 분포하고 있는 자연 생태 자원의 보고이다. 주변의 크고 작은 10개 지천이 합류하며 지대가 낮고 유속이 느려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습지를 이루고 있는 진영 봉하마을 인근 2.68km²는 특히 경관이 뛰어나다.

화포천으로 흘러가는 작은 실개천을 가진 봉하마을은 현재 약 40가구 120여명의 주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마을주민들과 오리쌀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을 시작했고 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농촌 체험을 위해 김해 특산물 장군차도 심었다. 또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화포천에 나가 몸소 쓰레기를 치웠다. 봉하마을에서 화포천으로 이어지는 독일 2km 남짓한 산책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연애시절 데이트코스로도 유명하다.

화포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하천형 자연습지로 노대통령이 어릴 적 시절엔 다양한 물고기와 참포, 산버들 같은 습지생물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 후 인근에 들어선 농공단지와 마을에서 흘러나온 쓰레기와 폐수 등으로 황폐해

졌지만 대통령 귀향 후 '화포천 살리기'를 통해 다시 맑아졌다. 특히 노대통령은 고향에 내려온 직후 마을주민들을 설득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오리농법으로 벼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지금은 마을 전체가 참여하여 약 80ha의 논에서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쌀을 재배하고 있다. 겨울에는 논에 물을 채워놓아 철새가 날아오게 하는 등 이 또한 화포천이 맑아지게 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림 4〉 노대통령 생가

노대통령 생가는 1946년 9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난 곳으로 퇴임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원래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에 김해시가 생가를 매입하지 못해 복원사업이 난항을 겪자 대통령의 고교친구가 직접 이 생가를 매입하여 김해시에 기부, 김해시에서 원래의 모습인 초가집으로 복원한 것이다. 복원 과정에서 대통령은 설계과정

부터 수차례 자문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되, 생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쉽터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서거 이후인 2009년 9월 복원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되었다. 생가는 11평 규모의 본채에 방 2칸과 부엌, 4.5평인 아래채에 헛간과 옛날식 재래 화장실이 있는 단출한 구조로 대대로 화포천가에 농사를 짓고 살았던 전형적인 농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화포습지는 김해시의 육지 환경과 낙동강의 수계 환경이 만나는 경계 지대에 위치하여 독특한 생태환경을 지니고 있다. 화포습지에는 멸종위기 식물종 2급인 가시연꽃, 멸종위기 동물종 1급인 노랑부리저어새와 2급인 알락개구리, 매, 수리부엉이, 큰기러기, 샛, 맹꽁이 등이 서식하고 있어 그 가치를 더하고 있는데, 다양한 식물군락과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공간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자연 현상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히 자연의 콩팍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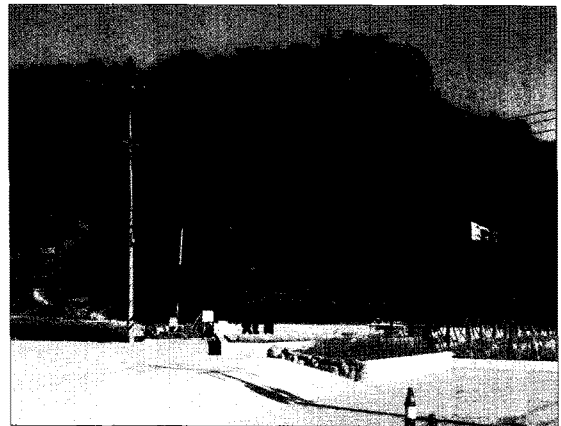


〈그림 5〉 화포천의 가을 풍경과 노랑어리연꽃

또 화포습지는 이러한 수질정화 기능 외에도 장마철 낙동강의 범람을 막는 홍수방지 기능과 강변 침식방지 기능, 지하수 충전을 통한 지하수량 조절 및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방출을 막아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주변 지역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등의 부가기능 또한 맡고 있다.

2. 화포천 주변의 문화유적

2.1 봉화산 마애불



〈그림 6〉 봉화산과 마애불

김해 봉화산 마애불(烽火山 磨崖佛)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된 통일신라~고려시대 때의 여래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로 말미암아 비로소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마애불이 있는 산의 이름은 봉화산으로 말 그대로 조선시대 봉화를 올리던 곳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 살던 봉

하마울은 봉화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서 불은 이름이다.

마애불은 산의 중턱에 있으며, 자연 암벽에 석불좌상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발견 당시부터 바위틈에 끼인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원래 이 불상은 바로 세워진 암벽에 좌상으로 새겨진 형태였으나, 바위가 산사태로 인해 옆으로 넘어지면서 양손과 왼쪽 어깨 부분이 다소 훼손되었으나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그런데 이 불상을 소위 와불상(臥佛像, 누어있는 부처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불상은 좌불상(坐佛像, 앉아 있는 부처상)으로 단지 불상이 새겨진 바위가 넘어져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불상이 누워있는 까닭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마애불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세우려고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했으나, 파손의 위험과 지형 훼손 등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혹자는 그 때 불상을 바로 세웠으면 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아쉬워한다.

그런데 이 불상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져 온다.

통일신라 때 중국의 당나라 황제에게는 어여쁜 황후가 있었다. 너무도 현숙하고 어진 까닭에 황제가 몹시도 사랑을 했는데 웬 일인지 그 사랑스러운 황후의 몸은 갑자기 쇠약해져 갔다. 이를 걱정스럽게 여기던 황제는 전의(典醫)를 부르고 갖은 약을 다 써 봐도 날이 갈수록 황후의 몸은 수척해 갈 뿐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어느 날 곤히 잠자고 있던 황후가 헛소리를 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흔들여 깨워 물으니 “소비는 밤마다 꿈을 꾸었는데, 그 때마다 알 수 없는 청년이 찾아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대로 고백하며 흐느껴 울었다. 황제는 앓는 황후를 위해 유명한 절마다 찾아가서 불공을 드렸는데, 어느 날 밤 황제도 이상한 꿈을 꾸었다.

두 사람의 중이 남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황제는 ‘저 중이 신승(神僧)일거야. 가는 곳으로 찾아가 보자’ 이러한 생각으로 뒤를 따라가니, 얼마쯤 가서 남쪽에 준험한 산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 산속에서 신승 앞에 황

후의 꿈속의 청년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앉으니, 그가운데 한 스님이 “네 이놈! 너는 불법을 어기고 당나라 황후를 밤마다 괴롭힌 놈이로다.”고 하고 청년이 용서를 바랬지만, 두 스님은 발버둥 치는 청년을 그 바위틈에 넣어 버렸다. “백년이고 천년이고 네가 죄를 뉘우치는 날 다시 구해주리라.” 하고 두 스님은 다시 가던 길을 계속 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황제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꿈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산과 바위를 찾아내도록 명을 내렸다. 신하들은 나라 안을 샅샅이 샅꿨으나, 당나라 안에는 그러한 산이 없었기에 남쪽 땅 남의 나라까지 찾아다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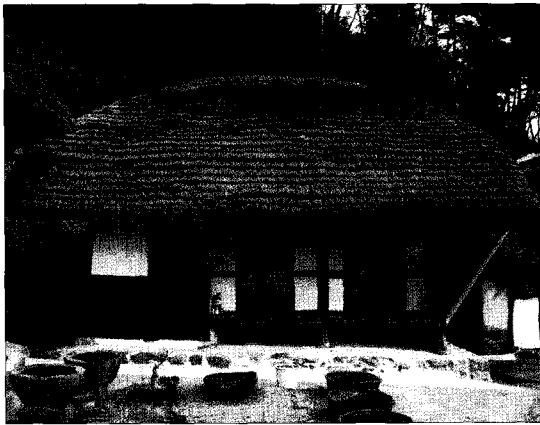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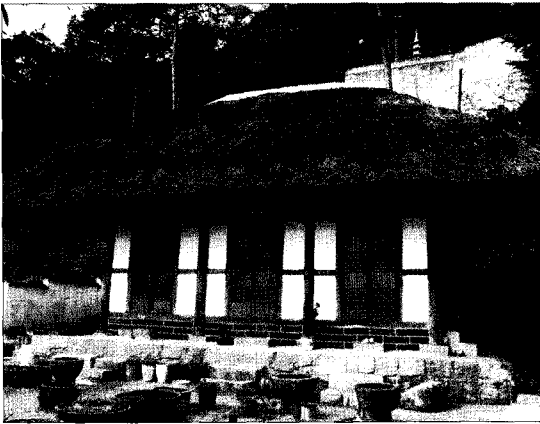
마침내 당도한 곳은 신라땅 김해의 자암산(紫岩山: 子庵山, 현재의 봉화산)이었다. 신하들은 황제의 꿈에 나타났던 바위와 그 바위틈에 갇힌 이름 모를 청년과 꼭 같은 석불(石佛)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떠나면 신라(新羅)땅까지 와서 찾아보고, 돌아간 사신들의 보고를 들은 황제는 경탄할 뿐이었다. 그 뒤 황후는 예전의 화색과 생기를 되찾았고, 자암산 바위에 갇힌 청년은 황후에 대한 연정 때문에 영영 신승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바위틈에서 고뇌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김해문화원, 김해의 설화, 2004).

불상의 머리 부분은 민머리(素髮)에 상투 모양이 크게 표현되었는데, 목에는 3개의 주름(三道) 흔적이 보인다. 코와 입 등은 부분적으로 마모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얼굴은 둥글고 풍만하다. 양쪽 어깨에 걸친(通肩) 옷자락(法衣)은 U자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다. 손 모양(手印)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른손은 손바닥을 펴 어깨 높이에서 손가락이 위로 향하게 하였고(施無畏印), 왼손은 허리춤에서 손가락을 아래로 향해 펴고 있다(與願印). 즉 오른손은 중생의 두려움을 풀어 주고, 왼손은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각각 나타내고 있어 석가모니 여래상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신체의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얼굴도 세련된 불상으로, 조각 기법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2.2 장방리 갈대집

김해 장방리 갈대집은 현재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42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집의 처음 건축연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임진왜란(1592~1599) 이후부터 낙동강 지류 화포천 연변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갈대로 지붕을 이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는 마을의 구전으로 보아 이들 가옥은 최소 19세기 이전에 초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갈대집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화포천 연변을 따라 집단 마을을 이룰 만큼 흔했다고 하나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된 이 집들 외에는 흔적을 찾기 힘들다.



〈그림 7〉 장방리 갈대집

현재 안채와 사랑채, 아래채로 구성된 장방리 갈대집은 전체적으로 동향의 화포천을 바라보는 산언덕에 위치하여 홍수 시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입지를 하고 있다. 남향의 안채와 서향의 사랑채는 ‘ㄱ’자 배치로 마당을 공유하고 있으며, 아래채는 사랑채와 다시 ‘ㄴ’자 배치를 하여 남향의 독

립된 마당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중 안채는 방 2칸, 마루 1칸으로 구성된 소위 ‘초가 3칸’의 원초적인 오막살이집 구성을 하였으며, 방에는 벽장시설을 하였다. 지붕은 두께가 50cm에 가까운 갈대를 쌓아 이었으며, 용마루는 원래 짚이었으나 함석으로 비를 막는 시설을 하였다.

안채는 1945년 건립되어 현재 영강사(永江寺)라는 사찰의 요사채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래채와 사랑채는 1920년대에 건립된 것이다. 김해 화포천 유역의 전통적인 건축 재료인 갈대로 지붕을 이은 장방리 갈대집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요소를 가지고 있어 건축사적으로는 물론 민속학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눈이 많았던 곳은 벼를 재배하고 남은 짚으로 지붕을 이어 살았으나, 강가에 자리 잡아 논농사가 힘들었던 이곳의 특성상 흔하면서도 초가와 달리 매년 지붕을 잇지 않아도 되는 갈대는 분명 최상의 재료였을 것이다.

2.3 시례리 염수당과 고문서

장방리 갈대집이 화포천 하류에 자리 잡은 부농의 민가(民家)라면 염수당은 화포천 상류에 자리 잡은 양반가의 종갓집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림 8〉 시례리 염수당

염수당(念修堂)은 700여평의 대지에 광주 안씨의 11대조인 안경지가 함안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곳에 건립한 가옥인데 18세기의 가묘, 19세기 민가인 염수당 등이 수대에 걸쳐 보존된 곳으로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402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랑채인 예강재는 예강 안언호가 수학하던 곳으로 상량문

기로 보아 1867년에 중수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정면 5칸, 측면 1칸의 민도리 형식의 팔작지붕을 가진 기와집이다. 사랑채 뒤편에는 안채와 가묘가 배치되어 있어 이 지역 조선시대 양반계층의 가옥 형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집에는 당시 양반사회에서 왕래한 훈서와 서간문 등 총 18점의 고문서(문화재자료 제279호)가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의 지역사회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현재 이 집의 소유자는 80살이 넘는 분으로 장성하여 타지에서 교장 선생을 하다가 종갓집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낙향하여 지내고 계신 분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에서 사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통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2.4 신천리 이팝나무



(그림 9) 신천리 이팝나무

화포천 유역권인 신천리 마을 계곡에 수령이 600년에 달하는 이팝나무가 있다. 현재는 마을 한 복판에 복개된 개울 옆에 민가의 담장에 기대어 서있어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 높이 15m, 둘레 35m, 수관 폭 사방 20m에 달하는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85호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는데, 아직도 마을에서는 매년 선달그믐에 용왕제를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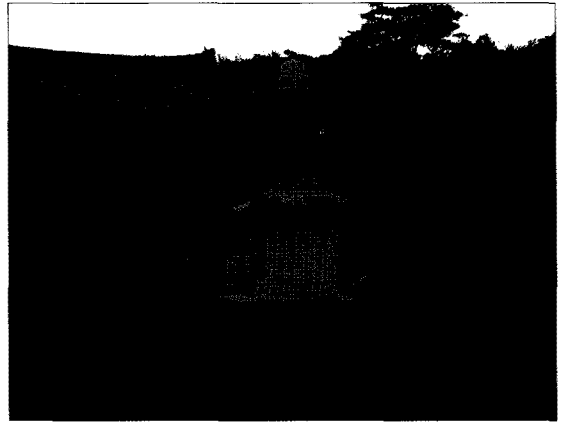
신천리 이팝나무는 지면에서 바로 세 개의 큰 동치로 갈라진 다음 다시 지상 50cm 지점에서 여러 개의 가지로 나누어졌다. 전체적인 형상은 균형 잡힌 우산꼴이지만 밑동치는 절반 가까이 삭아서 외과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지엽 밀도 역시 낮은 편이다.

이팝나무는 봄에 꽃이 피면 하얀꽃이 마치 흰쌀밥과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으로 꽃이 잘 피면 풍년이 오고 시들시들하면 가뭄이 든다는 전설이 있다. 가장 어려운 시기인 춘궁기에 잘 지은 쌀밥과 같은 꽃을 보면서 시름을 달랠던 선조들의 삶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5 신천 망월석탑

신천리 이팝나무 상류에 위치한 망천마을의 탑골 암자터에 있던 것을 1982년 경 현재의 흥덕사 스님이 옮겨 놓은 것으로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62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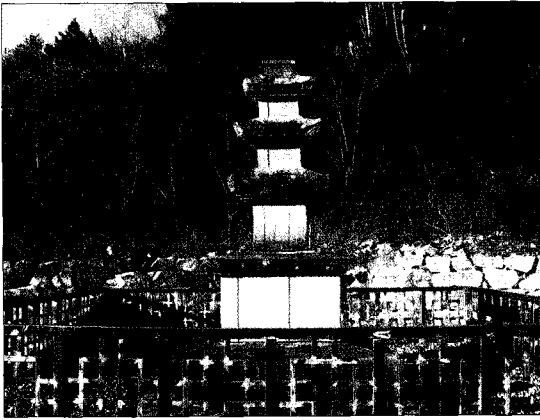
원래는 3층 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륜부와 2층 탑신 이하가 결실되었으나, 2000년 복원 정비하였다. 수로왕비 허황옥이 배를 타고 건너온 아유타국 고향을 기리기 위해 망월골에 석탑을 건립했다는 전설이 이 지역에 전해져 오고 있으나, 탑의 조각기법이나 규모, 제작수법 등으로 보아 고려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0) 신천 망월석탑

2.6 안곡리 3층석탑

화포천 유역인 한림면 안곡리 폐사지에 홀로 서있는 석탑으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있던 것을 2001년 복원 정비하였다. 원래의 탑은 기단부가 매몰되었고 옥개석 3매와 옥신석 1매만 남아 있었는데, 잔존하는 탑의 높이는 2.12m이다. 1층 옥신석에는 4면에 문짝 형상의 조각이 남아 있는데, 수법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1〉 안곡리 3층석탑

2.7 마사왜성(馬沙倭城)

한림면 금곡리와 생림면 마사리 경계에 위치한 해발 86m 구릉을 둘러싼 조그만 토성이다. 왜성(倭城)이란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을 막고 남해안과 낙동강 하류 일대에 장기간으로 주둔하기 위해 일본군이 쌓은 성으로 주로 남해안과 낙동강 하류역 등에 분포하고 있다. 마사왜성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쌓은 왜성 중 가장 내륙에 위치한 성으로 화포천이 낙동강 분류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이 탁월한데, 화포천을 통해 김해의 진례 분지로 진출할 수 있는 동시에 낙동강을 통해 다른 왜성과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3. 화포천의 미래

한국의 산림은 유사 이래 가장 울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뿔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가옥구조-은돌로 인해 늘 산림이 황폐했던 것이 최근에는 비록 전체 면적은 줄었지만 수목은 더욱 우거진 산림에서 소하천을 살리는 것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육지 환경의 총축이 되는 대하천-강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맑아지고 산림이 다시 우거진다면 양자를 연결하는 소하천-지류는 조금만 노력해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고 환경 변화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이런 소하천일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12월 21일)을 계기로 경춘선·중앙선 등 폐선로 구간과 지방의 간이역을 활용하여 친환경 녹색관광 명소를 개발키로 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녹색관광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75억원(국비 135억원) 규모로 폐선로 및 간이역 등 유휴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김해시도 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규모로 경전선 직복선화로 폐선되는 구간을 화포천 생태습지 조성 사업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관광명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레일바이크 조성('10년~'14년, 11.9km)사업, 익스트림스포츠타워 등의 시설이 2014년까지 조성된다(연합뉴스 2010.12.24자 보도).

그 외에도 봉하마을-화포천 생태테마형 관광벨트를 조성할 예정인데, 사업기간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21억원으로 봉하마을 어울림마당 조성, 생태문화 공원조성,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주차장 설치공사, 화포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화포천 권역 마을종합정비 등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 2010, 김해시).

김해시는 화포천과 봉하마을 일대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실현하여 지역균형발전 모델로 전파하고, 친환경 생태농업 체험교육의 산실로서 화포천 습지 보호 및 봉하마을 일대의 특별경관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경작지(봉하들)를 훼손하거나 침범하지 않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마을과 마을 주변의 경관(농지, 뱀산, 봉하산, 화포천 등)에 저해되지 않는, 바람직한 농촌 경관의 유지·관리·보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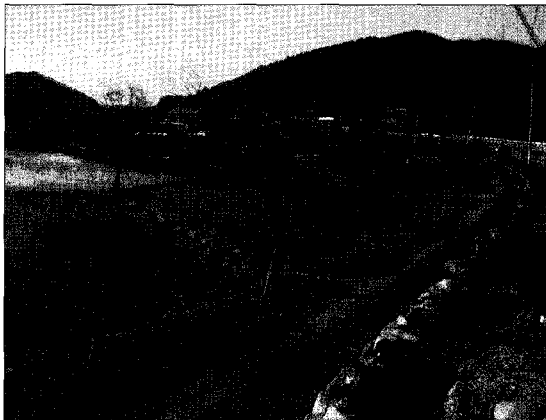
우선 시작은 봉하마을 한 곳이지만 이곳이 수범사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한다면 화포천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소하천의 마을들도 하천과 인간, 동식물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정비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그림 12〉 화포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은 물을 떠나 살 수 없다. 강물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인간의 역사를 따라 영원히 흘러야 할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 본류의 수심이 깊어져 화포 늪지에 다시 강물이 흐르게 될 지도 모르겠다.



〈그림 13〉 봉하마을 환경정비 사업

도심 하천인 청계천이 복원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처럼 대규모 국가 하천이 대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화포천 등 소규모 지방 소하천을 살리는 사업도 국비 지원을 통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역사적으로 화포천 지역의 진영읍 설창리는 현종 7년(1666년) 김해 부사 김 성이 건립해 국가의 납세물을 보관하던 창고였던 설창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지금의 화포 늪지가 강물이 흐르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화포 늪지가 지금처럼 변화한 것은 낙동강 하구둑이 막히면서 낙동강의 상류에서 운반된 토사가 쌓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 대책 사업으로 진행 중인 낙동강 살리기